궁금한 건 못 참지

천국&지옥 06

1.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누가복음 16:19-31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비유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을 소개하십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프고 가난한 사람 나사로입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고, 개들이 그의 헌데를 핥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에게는 풍요, 나사로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상황이 뒤바뀝니다. 사실 이 비유의 중심은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하데스), 곧 고통 받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간 걸까요? 단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많이 가졌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흔히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경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 겸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일상의 헌신, 내면의 정결을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지옥은 이 경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삶을 하나님을 거부한 삶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 즉 경건을 잃은 삶의 결과를 지옥의 본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지옥의 본질은 곧 자기 탐닉적이고 타인을 파괴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의 삶이 딱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직접 학대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만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더 본질적인 것은 이야기 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부자의 삶 말이죠. 예수님은 그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현실 앞에 자기중심적이고 무관심했던 부자의 삶을 정죄하십니다. 이 부자는 이 생에서 삶이 풍요롭고 풍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만든 건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없는 삶, 즉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에서 그 부자 부자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해도 지옥은 이어집니다. 그는 거기서 음부에서 고통 받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4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먹던 좋은 음식 도 못 먹고, 항상 목이 마릅니다.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많던 친구도 없습니다.

사실 지옥 하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 말이죠. 이 한마디 말로 두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진짜 그런 곳이야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심판이 있는 곳이지, 아니야 비유잖아 지옥의 실재와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런 곳은 아니야"라고 말이죠. 이렇게 짧게 말했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 내내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 정작 예수님은 우리가 논쟁하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만들어낸 영적 현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삶을 마감한 그 이후에도 지옥은 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지옥이 실제로 어떤 장소냐보다, 그 본질과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불꽃 속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 없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방향성의 결과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곳은 이 땅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이웃을 무시하며, 자기 탐닉적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고 죽음 이후에도 그 지옥은 이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 삶에서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 _____

- 우리는 종종 '지옥'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 _____

- 나사로와 같은 주변의 '고통 받는 이웃'을 나는 얼마나 주목하고 있나요?

  → _____

- 내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책임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 _____

-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웃 무관심'이라고 할 때,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_____

- 부자처럼 풍요롭게 살지만 내면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나사로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부자처럼 이웃의 아픔과 필요에 무관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경건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삶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풍요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경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